

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화) 서울 대한상의회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김상연 (044-203-5623)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참고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3.3(화), 14:00~15:30(90'),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주통상과장, 한미FTA이행팀장 등
 - (연구기관)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
 - (대학)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논의 주제

- 美 관세조치 관련 영향 및 대책 논의, 對美 통상전략 의견수렴 등

□ 세부 진행

※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2	(2')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미주통상과장
14:02~14:05	(3')	○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15	(10')	○ 對美 통상 대응 현황 공유	미주통상과장
14:15~15:27	(72')	○ 참석자 토론	참석자 전원
15:27~15:30	(3')	○ 마무리발언	통상교섭본부장